

實習過程 構成要素의 意味作用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Meaning Operation of the Factors Constitute the Course of Practice

이성남(Seong-Nam, Lee)

여주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본 논문은 2002년도 여주대학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실습과정의 구성요소와 의미작용

- 2-1. 실습과정의 의미체계
- 2-2. 실습과정의 통시성과 공시성
- 2-3. 해석체의 통시적 관점
- 2-4. 해석체의 정보속성
- 2-5. 해석체의 주관성과 공감
- 2-6. 해석체의 정보망
- 2-7. 해석체 정보망의 구조
- 2-8. 해석체 정보망의 의미구조
- 2-9. 의미정보와 의미작용

3. 결론

참고문헌

(要約)

실습은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육자와 실습의 대상인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실습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학생들에게 달성시키고자 하는 전공 지식과 기술로서 교육자와 학생의 관계에서 전달과 수용의 절차가 관여한다. 이와 같이 실습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의미의 대상이며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실습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이들 의미대상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의 현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실습의 과정에서 이들 의미대상이 형성하는 의미작용에 대한 현상적 분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연구자는 실습과정에서 이들 의미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작용의 요인들을 해석함으로써 실습과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인식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n educational practice is a communicational course between educator and student with scheme and execution of studying. The communicational contents of the practical course require teaching transmission and recipient process for educator and student as a major knowledges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hieve student's aim. The communication of practical course consists of educators, students, and practical contents, and they also form both meaning objects and mutual relationships for constitution of the practical courses. In order to develop the effective plan for practical process, we have to understand the phenomena of meaning operations which consists in connections of the practical exercise and the meaning object. This study is to approach a phenomenal analysis as respects the meaning operations how forms of the meaning object exert in the practical cours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grasp properties of the practical course into the meaning object, and in these connections, suggest the category of cognizance to put execution in the practical course by interpreting factors of the meaning operations.

(Keyword)

Educational Practice, Meaning Object, Meaning Operation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공실습은 교육자에 의해서 상정된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현재화시킴으로써 실무 직업분야에서의 활용성과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곧 실습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에 작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는 실습과정의 모형<그림1>을 토대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속성과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연구자는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의 내용을 의미대상(意味對象)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실습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관계로 연계하며 의미작용을 유발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실습과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의 유용성을 찾고자 하였다.

2. 실습과정의 구성요소와 의미작용

실습과정은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의 내용이 연계된 하나의 체계이며, 이들의 의미작용을 통해서 실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은 각 의미대상의 속성이 연계되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각 의미대상의 속성은 실습과정에서 그 대상이 차지하는 함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미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함축의미는 다른 대상과의 차별적 속성을 가지며, 대응하고 있는 대상을 해석하는 입장으로 표현되어진다. 이것은 곧 실습의 과정에서 각 의미대상이 대응하는 다른 의미대상들을 해석하는 주체(主體)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작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의 내용이 대응하는 대상을 해석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을 해석체(解釋體)라고 정의하였으며,¹⁾ 이들이 관계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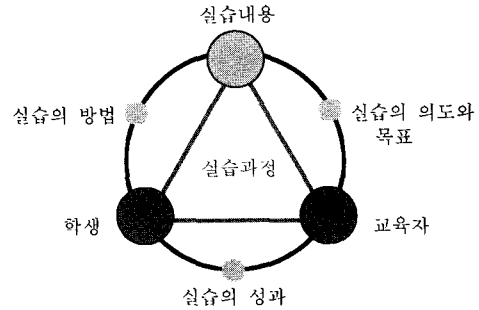
- ① 교육자에게 있어서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서 현재화시키기 위해 목표로 상정한 예비 전문가이다.
- ② 학생에게 있어서 교육자는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상정된 전문가이다.
- ③ 실습의 내용은 교육자가 이들 예비 전문가를 위해서 수립한 전공분야의 상정된 지식과 기술이다.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해석체의 이러한 입장이 작용하여 실습의 목적을 실현하고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계를 연계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실습과정에서 이

1) 박정순,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출판, 1997, p.140.

이것은 Peirce의 기호삼부모형에서 제시하는 해석체, 즉 기호와 지칭 대상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신적 개념으로서의 해석체가 아니라, 실습과정의 각 의미대상을 해석하는 주체(主體)로서의 해석체로 정의한 것이다.

들 해석체의 관계를 연계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내용으로는, 교육자와 실습내용의 관계에서 실습의 의도와 목표를 상정하며, 실습의 내용과 학생의 관계에서는 실습의 방법을, 그리고 학생과 교육자의 관계에서는 실습의 성과를 상정하게 된다.



[그림 1] 실습과정의 구성요소

따라서 연구자는 실습의 의도와 목표, 그리고 실습의 방법과 실습의 성과를 해석체의 관계를 연계하는 의미내용(意味內容)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습과정을 해석체와 의미내용이 연계되어진 통합체로서 인식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실습과정은 이와 같이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내용인 해석체와 이들을 연계하는 의미내용이 연합하여 의미체계(意味體系)를 형성하게 된다. 교육자는 실습과정의 이러한 의미체계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달성시키고자 하는 실습의 성과를 설정하고 이에 함당하다고 판단하는 실습의 내용을 가지고 실습의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실습의 방법을 통해서 실습의 내용을 학습하고 교육자가 목표로 하는 실습의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관계를 고려할 때, 실습과정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들 해석체와 의미내용의 관계성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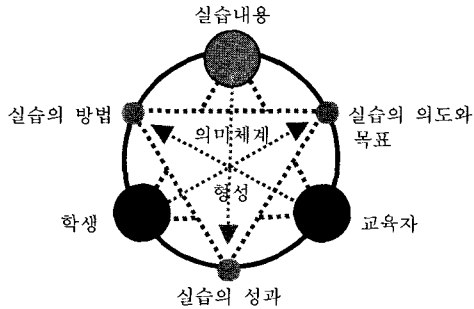
2-1. 실습과정의 의미체계

실습과정은 전공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함양하고 실무현장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실습과정의 이러한 목적지향성은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해석체의 관계에서 대응하는 대상들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형성하며,²⁾ 또한 해석체의 관계성을 연계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실습의 의도와 목표, 그리고 실습의

2) 馮友蘭,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상), 까치, 2001, pp.403-404.

우리의 감각 능력은 인식의 대상과 접촉하면 그 대상의 실체를 감각하고 우리의 경험 속의 대상을 열거하고 사유를 통해서 그 것을 해독함으로써 객관적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분명해 지는 것이다. 묵경(墨經)의 경상은 우리의 인식 능력을 우리의 시각이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형상을 모사(貌)하는 감각인식과 사유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이성인식으로 구분하고 이성인식은 고차적인 인식으로서 이를 통찰(明: 명확한 인식)이라 하고 있다. 즉 통찰이란 사유를 통해서 그 외물을 이미 경험한 것들과 비교 종합하여 그것에 대한 앎이 확연해 지는 것이다.

방법은 실습의 성과와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즉, 교육자는 실습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습의 방법을 수립하게 되며, 학생들은 실습의 내용과 방법을 통해서 교육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실습의 의도와 목표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실습의 내용은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의도하는 실습의 목표와 방법을 통해서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각 해석체와 이들을 연계하는 의미내용은 실습과정의 의미체계를 형성하며 작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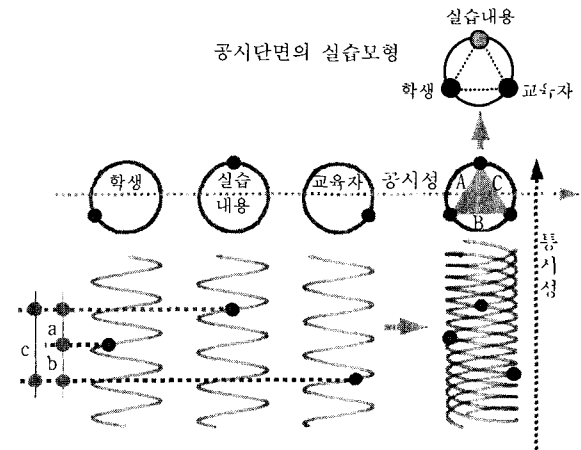
[그림 2] 실습과정의 의미체계

2-2. 실습과정의 통시성과 공시성

실습과정의 의미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습의 성과는 학생들에게 현재화 된 결과로서, 이것은 의미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작용의 효과가 해당 실습과정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실습성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의 성과에 차이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실습과정의 계획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습과정의 성과가 학생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원인에 대한 현상적 분석에 접근하였다.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과 경험에 의존한다. 개인의 역사성을 형성해온 각 시점에서의 사건과 경험 그리고 학습과 정보가 현재의 상황에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실습과정의 개인별 성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습과정에서의 이러한 현상적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하는 진화적 측면의 양상을 통시성(通時性)이라 하고, 시간의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특정한 시기(時期) 또는 시점(時點)의 양상을 공시성(共時性)이라 정의하였다. 개인의 통시적 역사성에 의해서 경험과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대상 인식 및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로 볼 때,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내용의 통시적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석체의 통시적 특성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습성과의 차이점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습과정에서 각 해석체의 입장을 형성하는 통시성과 공시

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석체의 통시성과 실습과정의 공시적 상황을 제시하는 도상적(圖象的)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분석에 접근하였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습과정의 모형으로 수립하고 있는 공시단면(共時斷面) A-B-C에 상정된 각 해석체는 독립적인 통시성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습과정에 임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보게되면, 이들은 실습과정이라는 공시적 상황에서의 입장만 같을 뿐, 실질적으로는 각자가 통시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 이해와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존재이다. 이와 같이 실습과정의 각 해석체는 통시적 특성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시적 관계의 구성요소라는 한정된 관점(觀點)에서 바라보면 이들에 관한 내용의 실질이 배제된 형식적인 실습모형이 되는 것이다. 즉 각 해석체가 독립된 통시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들의 통시적 측면의 임의수준(任意水準) 또는 상황(狀況)을 자의적으로 상정한 공시단면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 3] 해석체의 통시성과 실습과정의 공시단면

따라서 실습과정의 성과가 목표와 비교해서 차이를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해석체의 통시적 특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석체의 통시적 특성이 배제된 실습과정에서 이들은 입장의 차이(a-b-c)를 발생하며,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인식과 이해의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실습의 성과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적인 사실을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하는 실습과정의 계획은 허점(虛點)을 가지게 되며, 전달과 수용의 과정에서 오해와 이해의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목표에 상응하는 실습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阻害要因)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2-3. 해석체의 통시적 관점

<그림4>는 해석체의 통시적 특성이 배제된 실습모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황을 제시하는 도상적 개념으로서 실습과

정이 진행되는 통시축의 임의의 지점에서 해석체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해석체는 다른 해석체와의 대응하는 관계에서 이들의 통시적 특성에 따른 위상적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들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시점(時點)에 따라서 대상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해석체가 통시적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관점들 중에서 다음의 도상적 표현과 같이 특정한 상황의 정면과 좌우측면이라는 한정된 시점에 따라서도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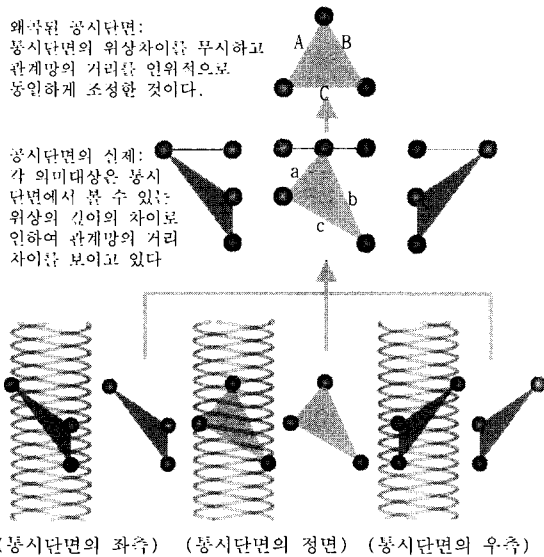


그림 4. 해석체의 통시적 관점

이와 같이 해석체의 통시적 특성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들을 인식³⁾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입장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공시적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게 된다. 또한 각 해석체가 통시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해석체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이러한 관점은 통시적인 시간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유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습과정에서의 물리적

3) 철학 대사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년, 1992, pp.1073-1074
인식(認識)은 인간이 객관적 실재를 이론적으로 파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의 결과로서 생겨나며, 인간의 실천활동을 합목적적으로 구현하는 토대가 된다. 인식은 객관적 지식으로서 인식대상의 본질적 연관,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연관을 체계적이고 관념화 된 형태로 적합하게 반영한 것이다. 인식은 합목적적 실천행위의 이론적 토대로서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지배해 나가는데 기여한다. 인식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인식의 적합성과 객관성 때문이다. 적합성의 정도는 인식의 진보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주관적인 요소들이 점차 제거됨에 따라 향상된다. 인간의 실천활동은 대상영역에 대한 인식에 기초할 때만 그 대상의 객관적 성질과 법칙에 조응하는 올바른 목표와 효과적 행동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인식은 자연, 사회, 사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영역 또는 물질세계 전체에 대한 경험적이며 이론적인 양이며, 체계적으로 정돈된 진술 및 진술체계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진술 및 진술체계는 각각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감각적인 직관과 연결되어 있다.

환경과 조건 그리고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실습의 환경적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해석체가 인지하는 정보와 자극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내용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⁴⁾ 이와 같이 실습의 과정에서 해석체의 통시적 입장과 공시적 상황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체의 이러한 특성과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실습과정의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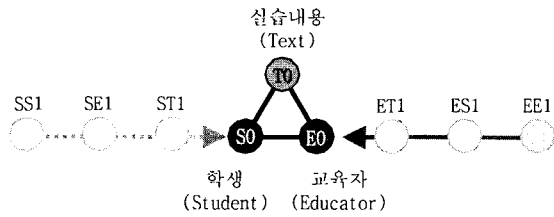
2-4. 해석체의 정보속성

교육자에게 있어서 실습과정의 계획은 자신의 입장에서 획득한 통시적 측면의 실습과정의 원형, 즉 교육자 자신의 교육적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학생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경험한 통시적 측면의 교육과 실습경험의 원형을 통해서 현 실습과정의 내용을 판단하고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자와 학생은 각자의 통시적 특성에 의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며, 전달과 수용의 과정에서 오히려 시행착오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실습과정인 공시적 상황에서 각 해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실습의 성과에 있어서 개인별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서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내용의 관계에서 이들은 공유하는 영역 안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과 이해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전달과 수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실습의 목표라는 점에서 각 해석체가 가진 이러한 주관성은 실습의 목표에 접근하고 실습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실습과정은 이러한 주관적 입장을 지닌 해석체를 연합하여 실습의 목표에 접근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 해석체의 주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실습과정의 계획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서 통시단면의 각 해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속성이 실습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해석체는 대응하는 해석체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 해석체에 작용하는 이러한 관점은 해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해석체가 대응하는 해석체를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작용하는 정보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실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미화 과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5>는 각 해석체가 대응하는 해석체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보의 속성을 제시하는 도상적 개념이다.

4)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실습과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실습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와 실습시간과 같은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체의 이러한 유기적 속성을 고려하여 실습과정을 계획하는데는 실습과정에 대한 교육자의 인식론적 문제와 방법 그리고 환경과 제도적 측면의 여러가지 제한적 상황이 존재한다.



「그림 5」 해석체의 정보속성

실습과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교육자(E0)는 해당 실습과정에 입하는 학생(S0)과 실습의 내용(T0)을 상정하게 된다. 이것은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해석체가 서로에게 상호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속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자가 실습을 수행하는 대상으로서 학생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인 자신과 실습내용의 관계에서 학생의 속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때 교육자는 자신의 통시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실습과정에 입하는 학생(S0)의 경험과 지식의 배경(ST1, SE1, SS1, ST2, SE2, SS2,...)을 투영하게 된다. 즉 현 실습과정에 있는 학생이 어떠한 입장에서(SS1) 누구에 의한(SE1) 실습의 내용을(ST1) 경험하였는가를 투영함으로써 현 실습과정에서 학생의 입장(S0)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E0)는 자신의 정보망에 있는 실습사례(ET1)를 참고하고 해당 실습에 입했던 학생(ES1)과 또 다른 교육자 또는 이전의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입장과 사례(EE1)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반영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자(E0)의 지식과 경험의 배경인 ET1, ES1, EE1, ET2, ES2, EE2, ...로서, 교육자는 이를 통해 현 실습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5)

2-5. 해석체의 주관성과 공감

이와 같이 각 해석체는 통시적으로 형성된 인식의 체계(교육자와 학생)와 내용의 범주(실습과정)에 속하는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는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공시적 입장을 갖게 된다. 실습과정의 해석체들이 형성하는 의미화 과정에서 각 해석체의 공시적 입장을 갖게하는 이러한 통시적 경험과 지식은 대응하는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실습과정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석체의 관계에서 이해의 작용이 지속적으로 유발되어야 하는데, 이때 해석체의 경험과 지식은 이해작용의 기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실습과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이러한 이해의 작용은 해석체 정보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식의 주체가 가진 정보와 대상이 가진 정보가 일치하면서 형성되는

5) David Sless, In Search of Semiotics, Croom Helm, Aus. 1998, pp.48-63.

David Sless(1986)는 독자(Reader)와 저자(Author)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러한 대상투영을 설명하고 있다. 즉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R0)는 저자(A1)를 이전 상황에서의 독자(R1)와 저자(A2), 그리고 그 이전의 독자(R2)와 저자(A3)의 관계성으로 확장하여 투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감(共感; Empathy)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는 기제(Freud,1921/1949)이며, 또한 도구(Reich,1966/1973)와 수단(Shapiro,1974)으로서 대응하는 대상의 방어기제에 침투하여 숨겨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6)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 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가 관련된 의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7) 따라서 실습의 과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공감은 각 해석체가 함축하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습의 목표와 더불어 실습의 내용을 통해서 달성할 실습의 성과를 이해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가지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실습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이 실습과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이 공감인 것이다. 실습과정에서 공감은 해석체의 정보를 이해하고 가치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실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로서 작용하며 실습과정을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실습의 과정에서 공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실습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8)

2-6. 해석체의 정보망

이와 같이 해석체는 자신이 가진 인식의 범주에서 대상을 투영하여 해석의 입장을 갖게 되며, 이해의 작용으로서 공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해석체에 발생하는 이해의 작용은, 이들이 통시적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누적된 정보가 이해의 대상에 대해서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석체의 이해의 작용이 대상에 대한 목적 지향성을 가짐과 동시에 이들의 누적정보(累積情報)가 병치와 열거의 연쇄고리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누적정보의 연합을 해석체의 정보망(情報網)이라 정의하여 구조분석에 접근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습과정의 성과와 공감은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공감은 해석체의 정보와 대상의 정보가 작용하여 일으키는 현상적 결과과는 점에서 해석체의 정보망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공감의 형성조건을 찾고자 한 것이다.

해석체가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보망에 의존한다는 것은 실습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동기(動機)를 갖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6)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원미사, 1996,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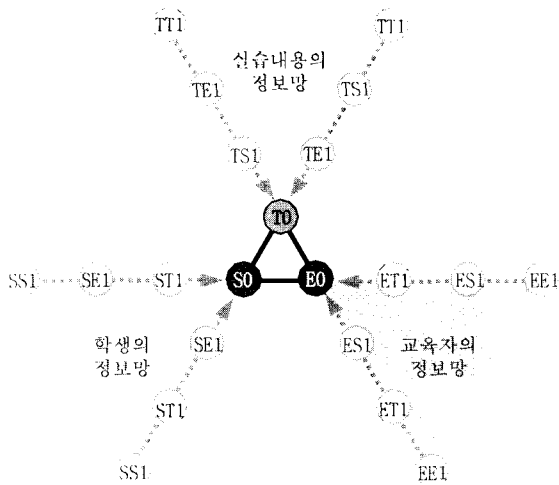
7) Rogers, C.,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Koch(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Vol.3), New York: MacGraw-Hill, 1959, pp.210-211.

8)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원미사, 1996, p.84.

특히 높은 공감조건이 제공되면 학생들의 심취수준이 올라가고 학교 생활을 보다 즐거운 것으로 경험하며(Aspy & Roebuck, 1977; Kieran, 1979; Rogers, 1983; Morgan, 1979) 자존심이 향상되고 갈등이 줄어 든다.(Bell & Bell, 1982; Miller, 1976)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통시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기의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반응과 행동의 원칙을 수립하여 실천하게 된다.⁹⁾ 이와 같이 동기의 대상간에 이루어지는 수용과 반응이 해석체의 정보망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보망을 구성하는 정보의 내용들이 동기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실습과정을 형성하는 3개의 해석체를 각 입장에 대응하는 동기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정보망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그림6>과 같은 도상적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각 해석체가 실습이라는 특정한 공시적 상황에서 대응하는 해석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누적된 정보들은 대응하는 대상의 속성을 투영하는 정보의 배열을 통해 정보체계를 형성한다. 해석체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정보체계는 실습과정의 구성요소들에 대응하여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체계의 연계를 통해서 실습과정의 공시적 상황을 이해하는 정보망이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그림 6] 해석체의 정보망

이때 대상을 투영하는 정보의 속성과 이들이 형성하는 정보체계의 범위는 대상에 대한 인식의 범주를 결정하며, 이들 정보체계가 연계하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인식과 이해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체의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정보망의 범주에 의존하는 주관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이 해석체의 주관성이 동기의 대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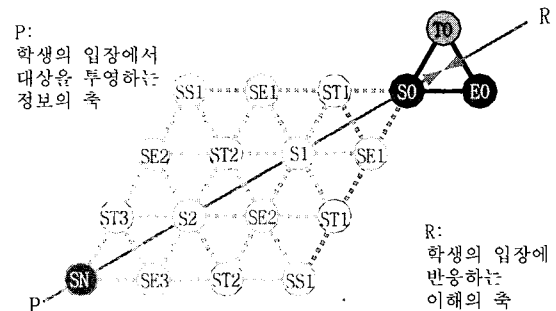
9) 김원수, 신경영학원론, 경문사, 1994. pp. 710-711.
인간은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이란 선택의 대상이 되는 대안(Alternative)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 결정하는 것이다. 사이먼은 인간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사실전제(Factual Premise)와 경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판단에 관련되는 가치전제(Value Premise)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

대한 목표지향성을 가지게됨으로써 이해와 공감이라는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체계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7. 해석체 정보망의 구조

이와 같이 해석체의 정보망은 대상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실습의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취하게 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각 해석체의 정보망을 구성하는 정보의 내용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체계로 구조화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습과정이라는 목표 지향적 상황에서 교육자와 학생은 동기화 된 태도를 취하게 되며, 실습의 내용은 실습의 목표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형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태도와 형식은 실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조건을 형성하며, 이러한 동기화조건(動機化條件)을 통해서 각 해석체는 상호이해의 작용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각 해석체의 목적지향성은 이들 정보망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병치하고 열거하게 된다. 이것은 동기의 대상이 가진 속성을 투영하는 정보의 연합으로서 이를 통해서 각 해석체는 실습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7>은 각 해석체가 실습과정에서 동기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하는 정보망의 구조에 대한 도상적 개념으로서 학생이 교육자와 실습의 내용에 대해서 형성하는 정보체계와 이들의 연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정보망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해석체의 정보체계

학생들은 통시적으로 형성된 자신의 주관성(SN, S2, S1, S0)을 반영하는 입장(P)에서 실습과정의 교육자와 실습의 내용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은 자신의 주관성과 연계된 교육자와 실습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통해서 투영되어지는 (R) 교육자와 실습내용의 정보범주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습목표와의 관계에서 이들의 당위성과 가치인식을 통해 공감도(共感度)를 형성하게 된다.¹⁰⁾ 이와 같이 각 해석체는 자신의 정보체계를 토대

10) B.R Hergenbahn, 김영채 역, 학습심리학입문, 박영사, 1985, pp. 323-330.

제인용 Wertheimer, M. Productive thinking, enlarged ed. by Max

로 대상을 투영하여 이해를 유발하고, 관계대상의 당위성 및 가치에 대한 공감을 통해 행위의 동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실습의 과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이해와 공감으로부터 형성되는 해석체의 가치인식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조건이 되며, 이를 통해서 실습에 대한 집중도가 유발됨으로써 목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2-8. 해석체 정보망의 의미구조

실습과정은 학생들에게 현재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실습의 내용으로 수립하여 체제화시킨 것으로서 일련의 실습과정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과정별 실습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내용이 해당하는 실습의 목표를 투영하는 입장에서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이라는 의미작용이 유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해석체의 관계에서 이해와 공감을 유발하는 의미정보(意味情報)¹¹⁾가 각 해석체의 정보망에서 발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는 정보의 전달방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습의 방법은 실습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며, 실습의 성과를 통해서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의 방법과 실습성과의 관계성을 감안할 때, 실습의 방법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교육자의 교수방법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실습의 방법은 교육자의 인식의 범주에서 수립하는 자의적 수단이기 때문에 실습의 목표와 성과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교육자는 자신의 교수방법이 학생과 실습내용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8>은 해석체의 정보망에서 의미정보와 실습방법이 형성하는 의미구조에 관한 도상적 개념이다.

A0: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과 실습의 내용을 투영하는 정보의 축

B0: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자와 실습의 내용을 투영하는 정보의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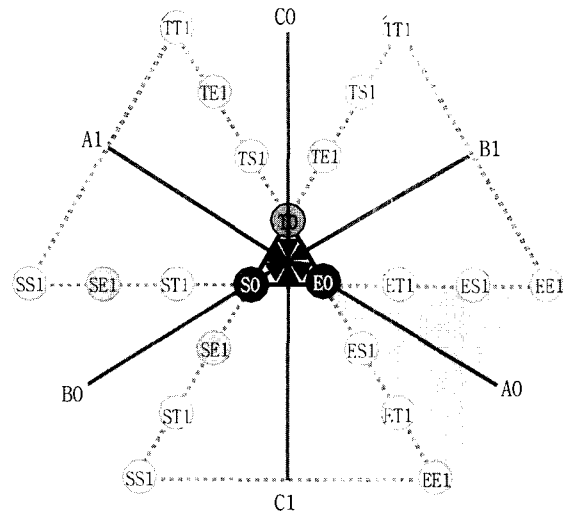
C0: 교육자와 학생간에 관여하는 실습내용에 관한 정보의 축

A1, B1, C1: 해석체의 각 입장에 반영하는 정보의 축

Wertheimer, edited by Michael Wertheimer. NY: Harper and Row, 1959(originally published 1945).

Wertheimer는 이해에 이르는 데는 학습자의 지능은 물론 정서, 태도, 그리고 지각과 같은 학습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포함되며, 문제해결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에 기초를 둔 해결에 이를 때까지 문제의 요소들을 인지적으로 배열하고 그리고 재배열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내부에서 문제의 성질과 구조가 파악되는 것이라고 한다.

11) 본 연구는 각 해석체의 정보망이 유의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의 관계성에서 의미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정보를 의미정보라 정의한다.



[그림 8] 해석체의 이해작용

각 해석체(E0, S0, T0)는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형성하는 정보의 축(A0, B0, C0)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대상들¹²⁾을 판단하게 되는데, 각 해석체가 획득하게 되는 이해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서 투영되어지는 해석체들의 정보범주에 의해 작용하게 된다. 즉 학생의 입장(S0)에서 인식하는 교육자(E0)와 실습의 내용(T0)은 실습과정의 목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S0)을 지향함으로써 파악되는 것으로서 교육자의 정보망과 실습내용의 정보망이 형성하는 정보의 축(B1)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정보가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육자와 실습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각 해석체는 정보망이 공유하는 영역(A1, B1, C1)안에서 이해의 범주를 갖게 되며, 해석체의 입장에 반영(反映)되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이해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각 해석체가 가지게 되는 이해의 범주는 대상의 인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정보망의 구조와 깊이 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자(E0)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B1) 영역에 어떠한 의미정보를 제시하고 A1 영역 안에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여 이들의 이해작용을 유발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실습과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교육자는 자신의 인식범주에서 이해하는 학생과 실습의 내용을 고려하게 되며, 이들의 관계성을 토대로 실습의 방법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교육자가 수립하는 실습의 방법은 실습내용의 정보망(C0)과 실습과정에 임하는 학생의 정보망(B0)이 공유하는 영역(A1)안에서 의미작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육자와 실습내용의 관계에서 함축하고 있는 실습의 의도와 목표(B1)를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실습의 의도와 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도는 실습의 방법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자와 학생의 관계에서 실습내용이 발생하는 이해의 범주(C1)도 이와 같은

12) E0의 입장에서 S0와 T0, S0의 입장에서 E0와 T0, T0의 입장에서 E0와 S0

원리에 의하여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의도하는 실습의 성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습과정에서 해석체의 정보망이 형성하는 의미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실습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림9>는 실습과정에서 각 해석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해의 범주를 종합한 것으로서 해석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작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그림8>에서 각 해석체가 가진 정보망의 축(A0, B0, C0)은 <그림9>에서와 같이 해석체의 입장(E, S, T)을 형성하며, 이에 대응하는 해석체들의 공유영역인 정보망을 통해서 이해의 범주(A, B, C)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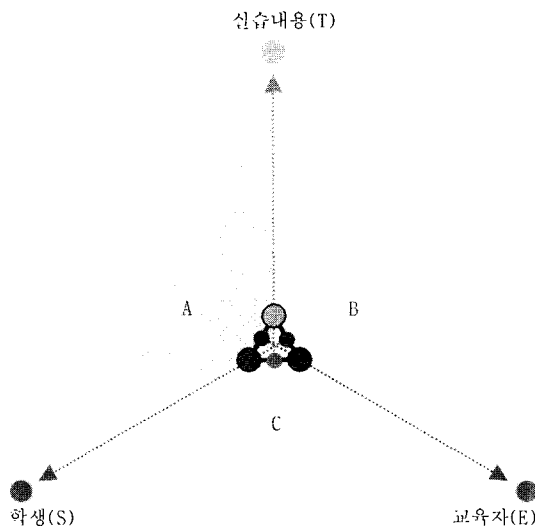


그림9 해석체의 이해범주

여기서 A의 영역은 학생과 실습내용의 관계에서 실습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이해의 범주이며, B의 영역은 교육자와 실습내용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실습의 의도와 목표를 이해하는 범주이다. 또한 C의 영역은 교육자와 학생의 관계에서 실습내용을 통해서 달성하고자하는 실습의 성과를 이해하는 범주가 된다. 따라서 실습과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상정된 해석체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선택과 전달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실습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가지게 된다.

2-9. 의미정보와 의미작용

해석체의 의미작용을 위해서 상정하는 정보는 실습과정에서의 이해와 공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실습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보의 속성을 파악해야한다. 각 해석체의 정보망은 통시적이며 주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해석체의 정보망은 동기의 대상을 투영하여 그 속성과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정보망의 범위에 따라서 이해와 공감의 정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실습의 과정에서 각 해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의

범위가 넓게 분포하여 정보망간의 연계가 많아지면 공유하는 이해의 범주가 확대됨으로써 대상의 인식과 이해의 작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10>은 각 해석체의 정보망의 범위와 이해작용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도상적 개념으로서 해석체의 정보망에 형성되는 투영정보의 연계와 병합의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각 해석체의 정보망의 범위를 통시적 측면에서 확대하면 이들 정보망이 공유하는 영역(A, B, C) 또한 확장되고 이들 정보망이 겹치는 부분에서 정보의 중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정보는 각 해석체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과 수용의 과정에서 간섭이 최소화됨으로써 이해의 작용을 신속하게 하는 의미정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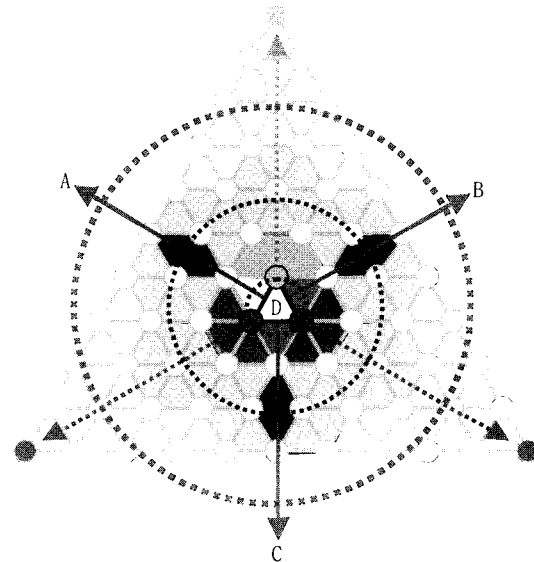


그림 10. 해석체의 의미정보

이러한 현상은 각 해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의 범위, 즉 각 해석체에 누적된 정보의 양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해석체의 누적된 정보량이 많을수록 다른 해석체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일치도가 높게 되므로 정보망의 확대를 통해서 정보의 연계와 중첩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 해석체 정보망의 범주를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에서 의미작용을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을 상정하여 이들의 이해범주인 적절한 지점에 적용하는 것이 현 실습과정(D)의 성과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해석체의 통시적 특성과 주관성으로 인하여 의미정보가 적용되어질 적절한 이해범주의 지점을 설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교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가 해당 실습과정에서 상정하는 의미정보와 전달의 방법은 해석체의 관계에서 의미작용의 발효요인(發火要因)이 되기 때문에 교육자는 실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

한 현상을 이해하고, 각 해석체의 관계에서 정보의 일치도(一致性)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의미정보를 상징하고 실습의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3. 결론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교육 담당자의 기본적 의무이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습과정을 형성하는 3개의 의미대상인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의 내용을 해석체로 정의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인식의 내용과 실천의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각 해석체는 각자의 통시성을 반영하는 정보망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 해석체의 이러한 주관성으로 인하여 교육자가 의도하는 실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체험 또한 동일하지 않으므로 실습의 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교육자는 실습의 목표와 실습의 내용 그리고 학생과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대상인식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해와 공감의 현상적 원리를 반영하여 실습과정을 계획하고, 실습과정에서의 의미작용을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의 선정과 수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달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실습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발생하는 의미작용에 대한 현상적 분석을 통해 실습과정의 계획에 있어서 인식하고 고려해야 할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실습과정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분석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교육자와 학생 그리고 실습내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작용의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出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습의 주관자인 교육자가 교육의 장(場)에서 자신이 행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행위의 내용을 인식하게 하며, 실습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관점을 제시하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미작용의 해석체로 상징한 실습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의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원수, 신경영학원론, 경문사, 1994.
-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원미사, 1996.
- 박정순,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출판, 1997.
- 이성남, 컴퓨터응용디자인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디자인

- 학연구 vol.11 no.1, 한국디자인학회, 1998. 5.
- 이성남,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인간공학 교과목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여주대학, 1998. 12.
- 이성남, 산업디자인학과의 전공심화 교육을 위한 접근방법 연구, 여주대학, 1999. 8
- 이성남, 교과목 연계에 의한 학습효과 향상에 관한 연구, 여주대학, 1999. 12.
- 이성남, 지역문화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 교과과정 연구, 여주대학, 2000. 6.
- 이성남, 디자인 교과과정에서의 교과목 연계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000, 11.
- 이성남, 디자인 교육에서의 CG 표현기법 연구, 여주대학, 2000. 12.
- 이성남, 3차원 동영상 실습과정 연구, 여주대학 지역정보개발연구소, 2001, 6.
- 이성남, 인터리어디자인의 기초교과과정으로서의 디지털 모델링 실습 연구, 여주대학, 2001, 6.
- 이성남, 디자인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방법 연구, 여주대학, 2001, 12.
- 철학 대사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녘, 1992.
- 馮友蘭,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상), 까치, 2001.
- B.R Hergenhahn, 김영채 역, 학습심리학입문, 박영사, 1985.
- Aspy, D.N., & Roebuck, F., Kid's don't learn from people they don't like. Aberst, M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ess, 1977.
- Bell, L., & Bell, D., Parental validation as a mediator in adolescent development, Washington, D.C., 1982.
- David Sless, In Search of Semiotics, Croom Helm, Aus. 1998.
- Kieran, S.S., The development of a tentative model for analyzing and describing empathic understanding in teachings of young childre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1979.
- Rogers, C.R.,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New York: MacGraw-Hill, 1959.
- Rogers, C.R., Freedom to learn, Columbus, OH, Charles E.Merril, 1983.
-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 Bloomington : Indian Univ. Press 1979.
- Miller, T., The effects of core facilitative conditions in mother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76.
- Wertheimer, M. Productive thinking, enlarged ed. by Max Wertheimer, NY, Harper and Row, 1959.